

## 기독교 예복에 관한 기독교인의 의식 조사

이 은 옥\* · 이 현 침\*\* · 오 경 화\*\*\*

중앙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 중앙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 중앙대학교 가정교육학과 교수\*\*\*

### Christians' Consciousness on the Christian Ceremonial Dress

Eun-Ok Lee\* · Hyun-Jeong Lee\*\* · Kyung-Wha Oh\*\*\*

Dept. of Clothing & Textiles, Graduate School, Chung-Ang University\*

Instruct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ung-Ang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ung-Ang University\*\*\*

(2002. 8. 21 투고)

#### ABSTRACT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true meaning of christian ceremonial dress, based on the Biblical background, by examining the origin and the symbolic meaning of the Catholic ceremonial dress. The influence of the Liturgical movement on the ceremonial dress and the changes in the symbolic meaning of the Christian ceremonial dress are studied. This research also aims to closely examine the difference in Christians' consciousness on the Christian ceremonial dress such as gown, stole, and clergy shirt. It aims to provide basic resources for the education and further study on the Christian ceremonial dress through reconfirming the basic understanding and the symbolic meaning of the Christian ceremonial dress.

As a result, according to the lesson of the Bible and the ideology of the Reformation, it is suggested that priests should wear regular suits or the traditional Hanbok rather than wearing gown or Roman collar. However, if most of Christians believe that it is critical to wear ceremonial dress to project holiness and seriousness during the service, it is suggested that priest should wear gown only and avoid Roman collar and stole because they only show the hierarchy of priests. Accordingly, there is a hope in this research that the knowledge of ceremonial dress could be re-defined based on the Evangelism in the Bible though the results of the study.

Key Words: christians' ceremonial dress(기독교 예복), liturgical movement(예배갱신운동), gown(가운), roman collar(로만 칼라), stole(스톨), clergy shirt(목회자 셔츠)

## I. 서론

20세기 초, 평신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 갈 수 있어야만 교회가 부흥된다는 생각에 기초하여 나타난 움직임은 첫째, 과거 일년에 성찬에 한번 참여하는 것이 전부였던 평신도들을 적극적으로 성찬에 참여시키는 것이었고, 둘째, 신부가 라틴어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평신도가 은혜를 받기 어려웠던 미사에 라틴어 대신 자국어 사용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는 1963년 12월 4일에 제2차 바티칸 회의에서 공인되었고 전례운동(The Liturgical Movement)이라 명명되었다. 천주교의 전례운동은 기독교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sup>1)</sup>, 기독교내에서 예배를 더 잘 드리자는 운동 즉 예배갱신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예배갱신운동으로 의식적인 요소가 많이 받아들여지면서 목회자들은 예복을 착용하기 시작하였으며, 강단 뒤편에 큰 십자가를 설치하거나 강대상에 제단보를 걸치고, 중앙에 있던 강대상 대신에 양옆으로 설교상과 사회상을 설치하면서 중앙에는 제단에 성경을 두고 촛대를 세워 놓는 등의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었다<sup>2)</sup>. 따라서 가운과 스톨을 착용하는 목회자들이 상당수가 생기게 되었으며 로만 칼라까지 착용하는 목회자도 나타났다.

전래된 지 100년이 넘는 우리 나라의 기독교는 예배의식에 있어 교파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예복에도 차이가 있다. 특히 1965년 이후 목회자의 가운, 스톨 및 로만 칼라의 착용이 늘어나면서 교단별로는 예복에 관심을 두는 교단과 그렇지 않은 교단으로 구분된다. 예복에 관심을 두는 교단은 주로 가운과 스톨 착용을 공식화하였고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로만 칼라나 스탠드 칼라를 착용하는 목회자도 출현하였다. 그러나 교단간에 예복과 평상복의 필요성과 그 상징적 의미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고, '오직 성경'이라는 종교개혁의 정신에 입각한 기독교에서 폐지되었던 예복을 착용한다는 것과 천주교의 전례복인 스톨과 로만칼라를 착용한다는 것은 종교개혁의 정신에 위배된다. 그런데 예배 집례시 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목회자임을 나타내야

한다며 일각에서 목회자의 평상복으로서의 예복을 제시한 현상은 성서와 기독교의 이념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래서 예복과 평상복의 성격적 의미를 다시금 고찰해보고 기독교 목회자의 예복과 평상복 착용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의식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제까지 기독교 예복에 관한 연구는 카톨릭 예복에 관한 연구(이경애, 1983; 고신천, 1988; 김지희, 1990; 이성은, 1995)와 초기 기독교시대와 비잔틴 시대의 복식에 관한 연구(구인숙, 1979; 김옥진, 1979; 박화순, 1979; 장현춘, 1983; 나인자, 1984; 김동명, 1988; 전광희, 1990; 김정길, 1993), 성서를 배경으로 한 히브리 복장에 관한 연구(오춘자, 1979), 기독교 복식의 상징에 관한 연구(김현, 1982; 이주호, 1986; 전광희, 1990), 기독교인의 복장에 관한 연구(노복실, 1971) 등이 있다. 한국 기독교 성직자 예전복에 관한 연구는 이순애(1985)의 연구 외에는 찾아보기 힘들며, 특히 개신교 성직자 예복과 평상복에 대한 기독교인의 의식조사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식주의인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예복을 착용하는 이유와 그 상징들을 살펴보고, 최근 한국 기독교 총 연합회에서 제시한 목회자의 평상복이 목회자와 평신도들에게 주는 의미와 목회자의 평상복 착용에 대한 기독교인의 의식을 조사함으로써 성직자 예복과 평상복의 복음주의적 의미를 다시금 정립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성서적 배경을 토대로 하여 예복의 의미를 밝히고 기독교 예복에 대한 기독교인의 의식을 조사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첫째, 기독교인의 기독교 지식과 예복 지식에 관한 지식정도를 알아본다. 둘째, 기독교 지식 및 예복 지식에 따른 예복과 목회자 셔츠에 관한 목회자와 일반성도의 차이를 알아본다. 셋째, 목회자의 기독교 예복과 목회자 셔츠 착용 실태 및 동기를 조사한다.

## II. 기독교 예복의 역사적 고찰

### 1. 기독교 예복의 상징적 의미와 변천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시를 인간에게 중계한 세 가지 계층이 있는데 그들은 선지자, 제사장과 지혜자이다(렘18:18). 선지자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며(창18:22; 20:7, 시105:15), 제사장은 멜기세덱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권세 있는 자였으며(창14:18, 민27:21, 레10:11), 지혜자는 성문에 앉아있는 중요하고 늙은 사람으로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다(창19:1; 23:10)<sup>3)</sup>. 구약성서는 성직자를 제사장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제사장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있는 자로 성서의 사제였다. 성직에 임명되어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로 나뉘어지는데 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하였다. 제사장 직분의 발전과정을 보면, 아브라함 이전 시대에는 제사장이 존재하지 않았고 개개인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했으며 그 이후에는 가족들을 위해 그 집안의 가장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였다(출12:3). 그러다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에서 한 지파를 택하여 그 지파에서 태어난 사람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그의 아들들과 후손들은 제사장으로 지명하였다(출28:1). 구약시대의 제사장 옷은 하나님이 정한 것으로 착용하지 않으면 생명까지 잃을 정도로 매우 중시되었다(출28:43). 제사장의 옷은 하나님의 명에 따라 철저히 만들어졌으며(출39:1,5,7,21,26,29,31) ‘거룩한 옷’으로써 정교하고 화려하며 아름다우나 겸손하고 성결하게 만들어졌다(출39:2-31).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만들어졌으며 반포속옷, 겹옷, 예복, 띠, 흉패, 관, 정금패 7가지로 구성되어 있었다(출28:4-43; 39:1-31, 레8:7-9,13). 제사장 복장은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하므로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의미한다<sup>4)</sup>.

신약 시대에는 예수가 대제사장이 되면서 특별히 구별되는 예복은 입지 않았다. 왜냐하면 신약시

대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수가 바로 대제사장이며, 예수의 보혈로 인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기 때문이다(벧전2:5,6; 계1:6). 그래서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과 사랑으로서 흉패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으로 투구를 쓰고(살전5:8), 궁홀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야 했다. 이렇게 옷감으로 만들어진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옷을 입어야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의 복장이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하였기에 하나님의 명에 따라 철저히 만들어졌으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가 대제사장이 되면서 특별히 예복을 구별하지 않게 되었다.

### 2. 초기 기독교 시대의 성직자 복식

초기 기독교 시대(예수탄생~5세기 초)의 기독교인들은 생활이 검소하였고, 이교사원이나 극장, 경기장 등에서의 모임에 참여하는 관습 등을 따르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를 기독교 수난의 시대라고 칭한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병원 등의 시설이나 학교, 극장, 법률 송사, 이교도의 축제, 경기장에서의 운동경기, 나아가 옷의 유행에까지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sup>5)</sup>. 그래서 그들의 검소한 생활은 의복에까지 그대로 영향을 주게 되었다.

초기 기독교 시대의 성직자는 특별한 의복을 입지 않고, 일상생활에 입던 복장으로 교회 직무를 보았으며, 성찬식을 거행하는 성직자들도 평신도들이 입는 것과 별 차이 없는 의복을 착용하였다. 그러나 깨끗한 흰옷이 권장되기도 했고<sup>6)</sup>, 4세기에 이르러 그 형태에서는 같았지만 점차 전례적(liturgical) 직무에서 입는 옷들이 일상적인 옷들로부터 구별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교회는 공동체의 예배에서 평상복(everyday civilian clothing)을 입다가<sup>7)</sup>, 콘스탄티네 하에서 교회가 공식화되고 교세가 확장됨에 따라 교회 내에서의 위계질서를 표시하기 위하여 로마 제국 관리들의 복장을 채용하게 되었다<sup>8)</sup>.

### 3. 로마 카톨릭 교회의 성직자 복식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성직자와 일반인의 의복이 구별되지 않았지만 콘스탄틴 대제 이후 차별화되어 비잔틴 시대에 이르러서는 성직자 복식이라는 개념이 확립되었다. 4세기에 침입한 게르만족의 영향으로 일반인의 복식 양식이 변하였지만 성직자들은 “세속적인 야만인의 옷”이라고 하여 이를 따르지 않고 로마 제국의 복장 스타일을 고수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일반인의 의복과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게 된 것이다<sup>9)</sup>. 이때부터 성직자들은 전례 집전시 본격적으로 일반인과 구별되는 전례복을 착용하게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고 교회 내에서도 전례상의 예복 착용을 주장하는 학자와 반대하는 학자로 나뉘어지게 되었다<sup>10)</sup>.

6세기 초 교황 Etienne 1세는 칙령 Liber Pontificalis에서 “사제들과 수도자들은 교회에서 축성된 옷으로 봉사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성직자들이 일반인들과 구별되는 복장을 입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로마 카톨릭 예복들은 각각 상징하는 의미가 있는데 장백의는 육신과 마음의 순결을, 달마티카는 구원과 기쁨과 정의를, 팔리움은 교황권의 충만을, 갑바는 새 사람을 입는다는 뜻이며, 웨스블은 사랑의 덕을 의미한다. 스톨은 성직자에게 부여된 직책과 의무를, 수단(cassock)은 하느님과 교회를 위해 자신을 바친 성직자의 속세에서의 죽음을, 검은 색은 속세를 떠난 성직자들, 로마칼라(Roman collar)는 독신의 정결을 상징한다. 이러한 모든 상징적인 의미들은 전적으로 독단적이고 제멋대로 적용된 것들이며, 단순한 의미의 옷이던 것도 일단 성직자가 입는 예복(제의, vestment)이 되면 곧 의복이 신비하고 비유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던 것이다<sup>11)</sup>.

오늘날과 같은 로마 카톨릭 사제복은 9-13세기에 완성되었으며, 현 카톨릭 성직자의 전례복은 크게 내의(內衣)와 외의(外衣), 휘장, 부속물로 나누어지는데 내의로는 개두포와 장백의(Alb), 중백의와 띠가 있다. 외의로는 웨스블, 달마티카, 갑바, 수단이 있으며 휘장에는 수대(미사때 사제의 왼쪽 팔

목에 거는 짧은 띠), 스톨, 팔리움이 있다. 부속물로는 주교관, 장갑(손등에는 십자가, 손가락에는 칠보 등 장식을 수놓음), 신발(가죽으로 만듦)과 양말(무릎 위까지 오는 비단양말, 위쪽에 작은 십자가를 수놓음)이 있다.

### 4. 종교개혁 시대의 성직자 복식

종교개혁은 초대교회(ecclesia primitiva)의 순수성과 단순성을 사모하여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 즉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자 라고 부르짖었고, 16세기 종교개혁의 구호가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인 만큼 순수한 기독교를 재발견하려는 운동이었다. 종교 개혁자들은 성경에 대한 무지를 중세 교회의 부패의 원인으로 보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성격의 절대 권위를 강조하였고 성경의 가르침을 종교개혁의 토대이자 출발점으로 보았다<sup>12)</sup>.

모든 개혁 교회는 모든 사제의 기적에 대한 사상, 성체 숭배, 평신도에 대한 잔의 거부(수찬 금지 제도)와 같은 로마 카톨릭교의 견해를 배척하면서<sup>13)</sup>, 희생제사로서의 미사를 거부했기에 미사와 관련된 예복 역시 거부하였다. 또한 성직자 계급의 제도적인 독재주의(hierarchical authoritarianism)에 대항하였기 때문에, 계급을 표시하는 성직자의 예복을 거부하였던 것이다.



<Figure 1> 종교개혁 시대 성직자 복식(마틴 루터)

특히 카톨릭 예복은 4-7세기의 세속 복장인 통치자들의 어의 또는 의례적인 복장으로부터 유래되었기 때문에<sup>14)</sup> 대부분의 종교개혁자들은 성직자들의 예복(Vestments)을 무시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은 성만찬을 비롯한 예배에 관한 모든 것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는 운동이었기에 예복 역시 평신도복과 성직자복의 차이가 없었던 초대교회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종교개혁 당시 루터파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회들은 미사와 미사 예복들을 전적으로 폐기하고 교회 예배에서도 예복 대신 세속 생활에서 입는 옷들로 대체하였다<sup>15)</sup>.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에 위배되는 것들을 모두 배척하면서 로마 카톨릭에서 독립하였고, 이후 로마 카톨릭 교회는 천주교, 구교, 카톨릭이라 불리고 복음주의를 기초로 한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개신교, 신교, 기독교라고 불리게 되었다.

### 5. 현대의 기독교 예복

현대에 와서 예배의식을 부흥하고자 하는 운동으로 교파별로 다르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개인의 성향에 따라 가운을 예복으로 대처하고 있다. 가운은 장로교와 칼빈 주의자들이 입는 제네바 가운(Geneva gown)과 미국에서 설교단(pulpit)들이 설교할 때 주로 입어서 풀핏 가운(Pulpit gown)이라고 불리는 가운이 있다. 제네바 가운은 길고 헐렁한 모양으로 중앙에 비로드 덧단이 있으며 현재도 착용되고 있는 목회자의 가운이고, 풀핏 가운은 길고 헐렁한 모양의 옷으로 요크가 있다. 특이하게도 한국에서는 풀핏 가운은 장로 가운으로 착용되고 있다.

한국 기독교의 예복의 경우, 교회력의 보급과 1960년대 중반부터 일어난 예배갱신운동(전례운동, The Liturgical Movement)은 목회자의 복장에 큰 영향을 미쳐 로만 칼라(Roman Collar)와 검정 제네바 가운, 그리고 교회력에 따른 스톨(영대, stole)을 착용하는 풍조가 생겼다<sup>16)</sup>. 그러나 보수적인 일부 교단들은 헌장이나 예식서에서 목회자의 예복에 대하여 전혀 거론하지 않고 있으며, 공식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교단의 입장은 <표 1>과 같다.

오늘날 한국의 목회 현장에서는 목회자들이 주로 검은 제네바 가운을 많이 착용하는데, 복음주의적 예배관을 가진 목회자가 가운을 착용하는 것에 대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아니라 성가대원들이나 헌금 위원들이 가운을 착용하는 것처럼 예배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입는다”고 변론한다<sup>17)</sup>.

<표 1> 예복에 대한 교단별 입장

<p>예수교 장로회 (김소영, 1980)</p>
<p>1) 예배에 착용하는 목회자의 예복 : 흑색 또는 곤색 양복과 한복 정장                  2) 가운 : 제네바 가운 착용                  3) 가운 위에 영대(스톨 : 절기표에 맞추어 흰색, 빨강, 보라, 녹색을 사용)를 착용.</p>
<p>기독교 대한성결교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교육국, 1989)</p>
<p>특별한 예식에 있어 별도로 규정하는 전통적인 스톨의 색깔은 없으나, 목회적 측면에서 예복과 드림천의 색상 상황별 권장                  ▶ 결혼식에는 흰색(순결 상징), 장례식에는 검정(엄숙함 상징), 성찬식에는 교회력에 따라 해당되는 색상의 예복과 스톨 사용(검정 가운, 흰색 스톨을 일반적으로 사용)</p>
<p>감리교 (기독교 대한 감리회 선교국, 1998)</p>
<p>예복 사용은 목회자의 선택에 의해 착용. 그러나 주일 아침예배, 성찬예식, 세례예식, 특별한 예배(장례예배, 결혼예배)의 경우 예복을 착용하도록 권장.                  1) 감독 : 위엄·회개·충성을 표상하는 적자색의 예복 착용(발목 길이)                  2) 성가대원 : 흰색, 청색, 녹색, 흑색, 황색의 성가대복 착용                  3) 어린이 성가대 : 여러 가지 밝은 색으로 의미 있게 조화시킨 성가대복 착용                  4) 안수 받은 교역자 예복 : 흰색 예복 권장. 스톨과 성직자 칼라(Clergy Collar) 착용가능. 스톨 착용시 교회력의 색깔에 기준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흰색 스톨 권장.                  5) 안수 받은 목회자 : 흰색, 흑색, 회색의 성직자 셔츠(Clergy Shirt) 권장</p>



<Figure 2> 현대 목회자의 가운과 스톨



<Figure 3> 로만 칼라



<Figure 4> 목회자의 평상복 - 목회자셔츠(한국 기독교 총 연합회)

### Ⅲ. 연구방법 및 절차

####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예복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우선 한국 기독교 총 연합회(한기총)와 NCC(National Church Council)에 가입된 교단 중에서 교세 통계표 집계에 따른 크기별, 인지도

별로 영향력이 큰 교단으로 교회수가 1000개 이상인 교단을 조사하여 10개-예수교 장로회(합동), 예수교 장로회(통합), 예수교 장로회(대신), 기독교 장로회(기장), 감리교,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기성), 예수교 대한 성결교회(예성),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순복음), 침례교, 독립교단-를 선별하였다. 선별된 10개 교단을 예복을 공식화한 교단-예수교 장로회(통합), 기독교 대한 성결교, 감리교-과 그렇지 않은 교단으로 나누어 조작성 정의를 하였다.

예비 조사는 1, 2차에 걸쳐 각 교단별로 목회자, 전도사, 신학생, 일반성도에게 60부씩 배부하여 응답자가 답하기 어려운 문항과 내용이 부적절한 부분을 조인 받아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본 조사는 2000년 9월 1일부터 9월 10일 사이에 각 교단별로 목회자, 신학생, 일반성도에게 80부씩 배부하여 총 800부를 편의표본 추출하였다. 개별 면담 형식을 취해 응답자가 설문 내용을 숙지한 후 설문에 응하도록 하였으며, 총 800부 중 내용기재가 부실한 9부를 제외한 791부가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표집대상의 분포경향은 <표 2>과 같다.

## 2. 측정도구 및 자료분석

각 교단의 총회 회장, 사무국장, 목회자들의 조인을 받아 연구자가 구성한 설문 문항을 1, 2차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보완한 후 기독교 지식, 예복 지식, 예복의 착용정도, 예복과 평상복에 관한 의식 차이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기독교 지식은 성경지식과 기독교 역사지식, 예배갱신운동에 관한 지식을 물어보는 9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예복 지식은 예복에 관한 지식을 묻는 문항으로 로만 칼라와 스톨을 누가 착용하는지와 그 상징적 의미를 아는지에 관한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예복의 착용정도에 관한 문항은 로만 칼라, 스톨, 가운 등의 착용여부를 묻는 6개 문항으로 목회자만 대상으로 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Type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러하다'를 5점으로 점수화하였다. 예복과 평상복에 관한 의식 차이는 목회자들의 예복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 평상복으로 제시한 목회자 셔츠의 착용이 바람직한지에 관한 의식 정도를 묻는 7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WIN 8.0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연구문제를 위해서 기술통계(빈도 분석,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의식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chi^2$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2> 인구통계학적 분석

변인	분류	응답자수(비율)
성별	남자	515(65.1)
	여자	276(34.9)
연령	20대	256(32.4)
	30대	230(29.0)
	40대	181(22.9)
	50대이상	124(15.7)
학력	중졸	14(1.8)
	고졸	124(15.7)
	대졸	276(34.9)
	대학원졸	357(45.1)
	기타	20(2.5)
직분	목회자	109(13.8)
	전도사	79(10.0)
	신학생	219(27.7)
	장로	18(2.3)
	일반성도	366(46.2)
교회출석	10년미만	144(18.2)
	10-20년미만	283(35.8)
	20-30년미만	235(29.7)
	30-40년미만	86(10.9)
	40년이상	43(5.4)
목회경력	10년미만	128(67.4)
	10-20년미만	54(28.4)
	20-30년미만	8(4.2)
	30-40년미만	0(0)
	40년이상	0(0)

## IV. 연구결과

### 1. 기독교인의 기독교 지식과 예복 지식

기독교 지식에 대해 성경지식과 기독교 역사지식, 예배갱신운동에 관한 지식을 물어본 9개 문항을 5점 Likert type척도로 목회자(전도사, 신학생 포함)와 일반성도(장로 포함)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기독교 지식은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성도에 비해 목회자들의 기독교 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복에 관한 지식정도는 로만칼라와 스톨을 누가 착용하는 것이며 그것의 상징적 의미를 아는가 하는 5개 문항의 정답을 살펴본다 전체 5문항을 다 아는 경우에 5점, 다 모르는 경우에 0점으로 점수화하였다. 그 결과 일반성도와 목회자의 예복에 관한 지식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복 지식에 있어 목회자와 일반성도 모두 로만 칼라는 신부가 착용하는 것이라고 응답하였지만, 로만 칼라의 상징의미나 스톨의 상징적 의미와 착용대상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목회자와 일반성도의 기독교 지식과 예복지식차이 Mean (SD)

응답자 지식	목회자 (n=407)	일반성도 (n=384)	t-value
기독교지식	3.76(0.37)	3.16(0.39)	22.172***
예복 지식	1.81(0.96)	1.61(0.81)	2.402*

p\*≤0.05, p\*\*≤0.01, p\*\*\*≤0.001

## 2. 기독교 지식 및 예복 지식에 따른 예복과 목회자 셔츠에 관한 의식차이

### 1) 목회자의 예복과 목회자 셔츠에 관한 의식차이

목회자들의 예복착용에 관한 의식을 조사한 결

과 '예복착용은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69.4%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보다 많았다. 그러나 목회자의 기독교 지식에 따른 예복 착용에 관한 의식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목회자 셔츠에 관한 의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68.7%가 목회자 셔츠를 목사가 착용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으며 <표 4>와 같이 목회자 셔츠 착용에 관한 의식은 기독교 지식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목회자의 예복 지식에 따른 예복 착용에 관한 의식을 살펴본 결과, 예복 지식이 보통과 낮은 집단에서 예복 착용을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목회자 셔츠 착용은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표 6>

<표 4> 목회자들의 기독교 지식에 따른 목회자 셔츠 착용에 관한 의식 차이

N (%)

지식정도	바람직여부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계	$\chi^2$ 검증
	높음	4(80.8)	1(19.2)	5(1.2)	$\chi^2=9.803$ df=2 p<0.05
	보통	111(31.3)	244(68.7)	355(87.2)	
	낮음	15(31.9)	32(68.1)	47(11.6)	
	계	130(31.9)	277(68.1)	407(100)	

<표 5> 목회자들의 예복 지식에 따른 예복 착용에 관한 의식 차이

N (%)

지식정도	바람직여부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계	$\chi^2$ 검증
	높음	1(25.0)	3(75.0)	4(1.0)	$\chi^2=8.62$ df=2 p<0.05
	보통	61(78.2)	17(21.8)	78(19.2)	
	낮음	203(62.5)	122(37.5)	325(79.8)	
	계	265(65.1)	142(34.9)	407(100)	

<표 6> 목회자들의 예복 지식에 따른 목회자 셔츠 착용에 관한 의식 차이

N (%)

지식정도	바람직여부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계	$\chi^2$ 검증
	높음	1(25.0)	3(75.0)	4(1.0)	$\chi^2=10.04$ df=2 p<0.05
	보통	36(46.2)	42(53.8)	78(19.2)	
	낮음	93(28.9)	232(71.1)	325(79.8)	
	계	130(32.2)	277(67.8)	407(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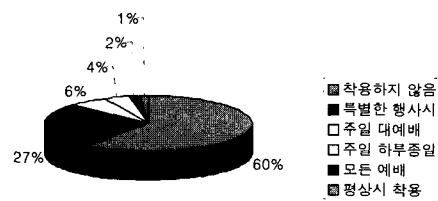
2) 일반성도들의 예복과 목회자 셔츠에 관한 의식 차이

일반성도들의 예복과 목회자셔츠 착용에 관한 의식을 살펴본 결과 예복착용을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69.4%로 많았으며 목회자셔츠에 관해서는 68.4%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일반성도들의 기독교 지식에 따른 예복 착용에 관한 의식 차이를 조사한 결과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p < 0.05$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기독교 지식이 높은 집단에서는 예복착용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반면, 기독교 지식이 보통과 낮은 집단에서 예복착용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독교 지식에 따른 목회자 셔츠 착용·예복 지식에 따른 예복 착용·예복 지식에 따른 목회자 셔츠 착용에 관한 의식에는 각각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시가 2%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운 착용실태를 조사한 결과는 Figure 7에서와 같이 총 108명의 응답자 중 '어느 경우에도 착용하지 않는다'가 8%, 특별행사가 78%, 주일대예배 때만이 9%, 모든 예배시가 3%, 주일날 하루종일이 1%, 평상시 항상 착용한다가 0%의 순으로 나타났다.



<Figure 5> 로만칼라 착용빈도 조사

<표 7> 일반성도들의 기독교 지식에 따른 예복 착용에 관한 의식 차이

		N (%)			$\chi^2$ 검증
지식정도	바람직여부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계	
높음		4(33.3)	8(66.7)	12(3.1)	$\chi^2=7.68$ df=2 p<0.05
보통		218(69.0)	98(31.0)	316(82.3)	
낮음		43(76.8)	13(23.2)	56(14.6)	
계		265(69.0)	119(31.0)	384(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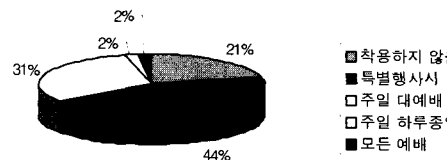
3. 목회자의 기독교 예복과 목회자 셔츠 착용 실태 및 착용동기

1) 목회자의 예복과 목회자셔츠 착용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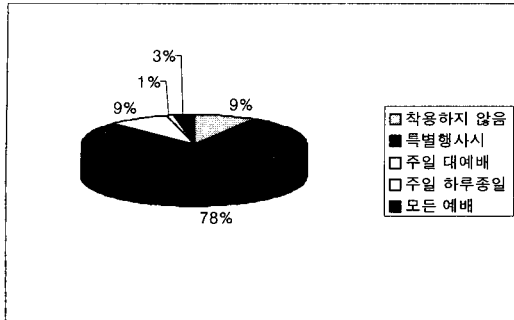
목회자를 대상으로 로만칼라 착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Figure 5와 같이 총 108명의 응답자 중 '어느 경우에도 착용하지 않는다'가 60%, 특별행사가 27%, 주일대예배때가 6%, 주일날 하루종일이 4%, 모든 예배시가 2%, 평상시 항상 착용한다가 1%의 순으로 나타났다.

스톨의 착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Figure 6에서와 같이 총 108명 의 응답자 중 '어느 경우에도 착용하지 않는다'가 21%, 특별행사가 41%, 주일 대예배때가 31%, 주일날 하루종일이 2%, 모든 예배

또한 평상시 목회자셔츠를 착용하는가에 대한 물음에서 88%는 착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Figure 6> 스톨착용빈도 조사



<Figure 7> 가운 착용빈도 조사

따라서 목회자들은 대부분 로만 칼라를 착용하지 않고, 스тол과 가운은 특별행사시 착용하지만 평상시 목회자 셔츠는 대부분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목회자의 예복과 목회자셔츠 착용동기

목회자와 일반성도 중 목회자가 예배 집례시 예복을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사람에게 이유를 물어본 결과와 평상시 목회자 셔츠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사람에게 이유를 물어본 결과를 <표 8>과 <표 9>에 나타내었다.

목회자가 예배 집례시 예복(가운)을 착용해야 하는 동기는 목회자와 일반성도 모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배의 거룩함을 성도들에게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는 예복을 착용함으로써 느껴지는 예배의 엄숙한 분위기를 중요시하고 하나님을 더욱 거룩히 모시기 위해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예복을 입음으로 예의를 갖추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평상시에 목회자 셔츠를 착용해야 하는 동기는 목회자의 경우 '목회자 자신의 신분에 맞는 언행을 규제하기 위해서', '복음을 몸으로 체험하는 교육적 기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의 순서로 나타났고, 일반성도는 '복음을 몸으로 체험하는 교육적 기능을 가질 수 있기 때문', '목회자 자신의 신분에 맞는 언행을 규제하기 위해서' 순서로 나타났다.

<표 8> 예배 집례시 예복(가운)을 착용해야 하는 동기

항 목	예복 착용 동기 (순위)	
	목회자 (N=265)	일반성도 (N=265)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표현	1	1
예배의 거룩함을 성도들에게 인식	2	2
예배의 표현 수단으로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	3	3
예배를 인도하는 자로서 권위를 강화	4	4
성직자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표현	5	5

<표 9> 평상시 목회자 셔츠를 착용해야 하는 동기

항 목	목회자 셔츠착용 동기 (순위)	
	목회자 (N=130)	일반성도 (N=120)
평상시에도 목회자 자신의 신분에 맞는 언행 규제	1	2
복음을 몸으로 체험하는 교육적 기능 소지	2	1
한국교회 목회자로서의 일체감과 교회연합의 바탕 조성	3	5
복음 전도에 가시적인 효과 부여	4	3
일반성도와 구별되어 목회자의 권위 표현	5	4

V. 결론 및 제언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예배갱신운동의 영향으로 말씀만을 강조하여 예복을 착용하지 않았던 한국 기독교내의 목회자들 중 일부가 가운을 착용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로만 칼라와 스тол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를 도외시 한 채 예배의 엄숙한 분위기를 이유로 목회자가 로만 칼라와 스тол까지 착용하는 풍조가 확산되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일부 교단에서는 가운과 스тол을 공식화하였지만, 공식화하지 않은 교단의 목회자 중에서도 다수가 가운 위에 스тол을 착용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실증 조사에서도 나타났다.

성경의 가르침과 종교개혁의 이념에 따르면 가운이나 스тол, 로만 칼라의 착용을 피하고 예복 대

신 정장이나 한복을 깨끗하게 착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기독교인이 예배의 거룩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위하여 예복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면 상징하는 의미가 없고, 전례복도 아닌 가운만을 착용해야 할 것이다. 카톨릭 예배에서 유래된 로만 칼라와 스톨은 독신의 정결을 상징하고 성직자의 상하계급을 나타내므로, 성직자의 계급이 없는 기독교에서 별도의 공식적인 명칭 없이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상징적인 의미도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착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그리고 현실적인 이유로 예복(가운)을 불가피하게 착용해야 한다면 예복은 목회자에게 스스로 목회자임을 지각시켜 언행을 규제하게 하는 기능을 담당해야 할 것이며, 목회자의 겸손한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성서적 관점에서 예복을 재 고찰하여 예복이 상징하는 의미를 재발견하는 동시에 기독교 예복에 대한 인식이 성서적 복음주의에 기초하여 새롭게 정립되기를 바란다.

본 연구는 조사대상을 수도권에 거주하는 기독교인만을 대상으로 단순 무작위 표집하였기 때문에 지역적, 교단적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결과를 전체 기독교인에게 일반화시키는 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후속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 지식과 예복 지식에 따른 예복과 목회자 셔츠 착용에 대한 인식은 성경에 대한 교육 정도에 따라 변화할 수도 있으므로 관련 변인을 세분화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기독교 지식과 예복 지식에 따른 기독교인의 의식 차이를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으나 앞으로는 교회에서의 교육 정도 또는 기독교인 개인의 심리적 요인과의 관련성을 단계별로 분석하여 파악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평상복으로 제시된 목회자 셔츠의 착용이 제반 사회적 요소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와 예복과 평상복으로 제시된 목회자 셔츠의 착용에 대한 목회자들의 적극적인 응답을 도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 참고문헌

- 1) 정장복(1988). 예배학 개론. 서울: 종로출판 주식회사. pp. 49-50.
- 2) 유선호(1993). 예배갱신운동의 정체 I, II. 할렐루야 서원. pp. 37-50.
- 3) 원용국(1991). 구약신학. 세신문화사, pp. 199-215.
- 4) Mathew, H. (1979). 성서주석시리즈③출애굽기(황장욱 옮김). 서울: 기독교문사. pp. 18-50.
- 5) 이대섭 (1989). 초기 기독교의 역사적 배경. 성광문화사. pp. 167-175, pp. 264-268.
- 6) James, N. (1944). *Handbook to the christian liturgy*. London: Society for Promoting Christian Knowledge. pp. 34-39.
- 7) Davies, J.G. (1986). *The new Westminster dictionary of liturgy and worship*.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pp. 35-46.
- 8) 유선호. 앞의 책. pp. 57-70.
- 9) Ilion, T.J. (1988). 복음적 예배의 이해(정장복 옮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출판사. pp. 49-55.
- 10) 카톨릭 대사전 (1954). 상지대학편찬. pp. 11-77.
- 11) Philip, S. (1910).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Mich: WM. B. Erdmans Publishing. Co. pp. 23-165.
- 12) 손두환 (1999). 종교개혁사. 씨토스출판사. pp. 19-36.
- 13) 기독교대백과사전 (1985). 제16권. 기독교문사. pp. 167-268.
- 14) 최윤환 (1994). 미사해설. 카톨릭 출판사. pp. 90-95.
- 15) *The Catholic Encyclopedia* (1913). Vol. I, III, IX. N. Y.: The Universal Knowledge Foundation, Inc. pp. 9-19, pp. 30-41, pp. 65-77.
- 16) 정장복 (1999). 예배와 설교 핸드북. 흥성사. pp. 43-60.
- 17) 유선호. 앞의 책. pp. 190-193.